

# 말씀의 샘

##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19:13~15 / 마가복음 10:13~16>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있는 만큼 교회가 내일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들이 많은 만큼 세상의 내일이 희망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발전된 문명과 문화가 아이들의 영혼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인터넷이용자가 20억이 넘었고, 휴대폰 사용자는 그 이상입니다. 2010년 10억 3천만대 핸드폰이 판매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스마트폰 판매대수는 3억개가 넘는답니다. 이제는 온라인 세대인 것입니다. 온라인 세대가 믿음의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예컨대, 구글에 예수를 치면 4억 1600만개의 결과가 나오고 포노노 치면 9억 5천만개 이상의 결과물이 뜬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10억명 이상이 출생할 예정인데,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이러한 수많은 화려한 콘텐츠에 자연적으로 무분별하게 노출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미국 리서치그룹인 바나 그룹에 의하면 크리스천 아이들은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급속하게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인기스타는 레이디가가, 가장 인기있는 게임은 워크래프트와 같은 전쟁, 폭력적인 게임이며, 수많은 무분별한 정보를 매일 흡수하고 다양한 SNS를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몰랐던 글로벌 친구와 사상과 의견을 무작정 접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건전한 교육을 통해 그들을 잘 통제할 수 있을까요? 미국 어린이들만 보더라도 매일 8시간 넘게 TV, 온라인미디어를 시청하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악한 세대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어린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될 때 천국의 능력, 천국의 역사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가지로 **이런 자는 어떤 자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런 자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은 같은 정황의 말씀이지만, 마가복음에는 15절 말씀이 더 설명되어있습니다.

**마가복음 10: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받들다(δέχομαι)**라는 단어는 손으로 잡아서 취하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배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떠받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섬기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며,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 11: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계시도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 준비가 된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성장합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성장 속도는 절대 따라잡지 못합니다. 순수함은 신앙성장의 제트엔진이며 믿음의 성장판과도 같습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것은 순수함에서 비롯됩니다. 오히려 많이 아는 그것이 우리의 순수함과 사모함, 그리고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기적을 신화로 받아들이고 질문할 때 “신구약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성경의 껍데기만 남을걸세”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4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비교적 정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빌립, 안드레, 한 소년 이 세 사람의 유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빌립입니다.** 현실계산형이고 어른이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빌립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합니다.

**둘째 유형은 안드레입니다.** 문제 앞에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유형입니다. 이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부정적입니다. 주님께 의뢰해서 해결할 생각보다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 와서까지 부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안드레 유형이며, 어른입니다.

**셋째 유형은 도시락 준 아이입니다.** 교회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많은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선명해집니다.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고 현실적인 계산만 하고 의견을 내기보다는 순수한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순수한 기대감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심었습니다. 이런 자가 교회에 일꾼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순수하게 주님 앞에 기대하며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손에 드리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어린 아이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이런 자는. “겸손하고 의존적인 자”입니다.**

**마태복음 18: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저는 아이들이 뭐가 겸손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기적이고 철없고 떼쓰고 욕심 부리고, 상황을 고려 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 진정한 겸손의 의미는 온전히 의존적일 때 가능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탕자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스스로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바로 뒤에 공교롭게도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겸손한 어린아이와 자기 스스로 살려는 교만한 어른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는 듯합니다.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스스로 영생을 위해서 거룩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른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많고 계명도 지키고 스스로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100% 의존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물으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두란노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천국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 5월 1일 주일 예배 이 강화 목사

## 2016. 5. 8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에베소서 6:1~3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오늘 회복해야 할 신앙"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